

故설리, 장례 비공개 속 연예계 동료들 추모 물결

스타들 몇몇은 악플러들에 일침 가하기도



가수 겸 배우 설리(25·본명 최진리)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가운데 연예계는 비통함 속에 미리 예정돼 있던 행사들을 취소하며 설리의 사망을 슬퍼하고 있다. 동료들 역시 추모글 등 통해 그의 죽음을 이틀째 애도하고 있다.

장례 절차를 미디어 등 외부에는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설리 SM엔터테인먼트는 공식지료를 통해 “설리가 우리 곁을 떠났다”며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믿기지 않고 비통할 따름”이라고 해 설리의 사망 소식을 알렸다. 이어 “갑작스러운 비보로 깊은 슬픔에 빠진 설

리의 유가족분들이 조용히 장례를 치르길 원하고 있다”라며 “빈소 및 발인 등 모든 장례 절차를 취재진에게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한다”며 “마지막 가는 길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간곡히 협조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설리의 사망 소식에 연예계 역시 슬픔에 빠졌다. 설리와 친분이 있는 사이로 알려진 구하리는 15일 자신의 SNS에 “그 세상에서 진리가 하고 싶은대로”란 글을 올렸다. 구혜선 안재현 박지민 돈스파이크 신현준 이상민 딘딘 선데이 윤일상 안재현 구혜선 현진영 윤현숙 권민아 하리수 방민아 등 여러 스타들도 14일과 15일 SNS 글을 통해 설리를 추모했다. 또한 이들 중 몇몇은 설리에게 여전히 악플을 다는 악플러들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설리와 한 식구인 SM 아티스트들은 일정을 ‘올스톱’했다. 슈퍼엠(SuperM)은 14일 SBS 특집쇼 녹화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했으며, 태연은 정규 2집 ‘퍼포즈’ 콘텐츠 공개 일정을 뒤로 미뤘다. 슈퍼주니어 등에는 생일 기념 팬미팅을 연기했고, 슈퍼주니어는 V라이브 생방송을 취소하기도 했다.

연예계 역시 예정된 행사를 취소하며 추모 물결에 동참했다. 15일 쇼케이스를 진행할 예정이었던 엔플라잉은 일정을 취소했다. 이날 열릴 계획이던 넷플릭스 ‘바나래의 농염주의보’, 넷넷 ‘썸디2’ 제작발표회, 올리브 ‘치킨로드’ 제작발표회 역시 취소됐다.

설리 사망...中·英·日 등 외신 집중 보도

가수 겸 배우 설리(25·본명 최진리)가 사망한 가운데, 외신 역시 이틀째 해당 소식을 보도 중이다. 15일(이하 현지시간) 일본지 산케이스포츠는 ‘f(x) 전 멤버

설리 사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소식을 알렸으며, 이날 WoW! Korea는 구하리가 올린 설리 추모글을 보도했다. 또한 전날에도 설리의 사망 소식은 일본 여러 매체와 포털 사이트에서

비중 있게 다루었다. 인민망, 소후닷컴, 차이나닷컴 등을 비롯한 중국 매체들 역시 14일 설리의 사망 소식을 집중 보도했다. 영국 BBC도 14일 ‘K팝 스타 설리가 사망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써 설리의 사망 소식, 그의 활동 내역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동상이몽2’ 이상화 “운동 아쉬움, 강남 만나 다 풀려”

이상화 은퇴 심경 밝히며 눈물 흘린 장면 11.9% 최고 시청률



‘동상이몽 시즌2 - 너는 내 운명’ 강남 이상화 커플이 최고의 1분을 차지했다. 15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방송된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이하 ‘너는 내 운명’)은 5.3%, 8.7%, 7.5%의 전국일일시청률을 기록했다. 이상화가 은퇴에 대한 심경을 밝히며 눈물을 흘린 장면은 분당 최고 시청률 11.9%(수도권 기준)까지 치솟았다.

이날 방송에는 거제도도 여행을 떠난 조현재 박민정, 웨딩드레스를 방문한 강남 이상화, 아이들을 위한 셀프 동화책을 만드는 윤상현 메이비 부부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스튜디오에는 배우 강성연이 스페셜 MC로 출연해 입담을 펼쳤다. 조현재 박민정 부부는 거제도도 리마인드 여행을 떠났다. 거제도

트’라며 바닷가에 흰색 조약돌로 아내를 위한 메시지를 쓰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비장한 모습으로 준비를 시작한 조현재는 200kg에 달하는 돌을 일일이 하나씩 올려두는 등 조박이 스러운(?) 이벤트 초보자의 면모를 드러냈다. 이후 조현재는 우여곡절 끝에 완성한 ‘MI♥’ 글씨를 박민정에게 보여주며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고, 예상치 못한 이벤트에 박민정은 “살면서 이런 걸 다 받아보네”라며 감동받은 모습을 보였다.

강남 이상화는 본식에 입을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정하기 위해 숲을 방문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드레스를 살펴보던 이상화는 “나도 예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며 보디라인이 강조되는 메메이드 라인의 드레스를 원한다고 밝혔다. 반면 강남은 풍성한 드레스가 좋다고 ‘드레스이몽’을 보였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서는 선수 유니폼이 익숙했던 이상화가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리액션이 걱정이라던 강남은 드레스를 입고 나온 이상화를 향해 연신 “너무 예쁘다”며 눈을 떼지 못했고 “오정 같았다”고 속마음을 드러냈다.

한편 이날 이상화는 “다시 운동을 하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내기

도 했다. 그러나 이상화는 무릎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털어냈고, 강남은 “차라리 내 무릎 가져가”라는 진심 어린 속마음으로 모두의 감탄을 자아냈다.

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이상화는 “1등을 했던 사람이 한계만 내려가는 건 용납을 못하겠다”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러던 중 이상화는 “꼭 1등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갇혀서 살았다”고 이야기하며 왈카 눈물을 쏟아보는 이들과도 울컥하게 만들었다.

그런가 하면 이상화는 “올림픽을 준비했던 기간을 생각하면 조금 속상하고 아쉬운데, 오빠를 만나면서 그런 아쉬움이 다 풀린 것 같다”며 강남과 함께하며 위로가 됐음을 고백했다. 이날 이상화가 은퇴에 대한 심경을 최초로 고백한 데 이어 힘들었던 마음이 강남을 만나 치유됐음을 밝힌 이 장면은 모두의 응원을 이끌어내며 분당 시청률 11.9%로 ‘최고의 1분’을 차지하기도 했다.

윤상현 메이비 부부는 아이들을 위한 셀프 동화책 만들기에 나섰다. 최근 아이들과 잘 놀아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에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한 것. 메이비는 동화 백설공주 이야기를 토대로 동화책 내용을 작성했고, 윤상현은 첫째 나경아와 함께 동화책에 들어갈 배경을 똑똑 그려내며 수준급의 그림 실력을 드러냈다.

윤상현과 메이비는 각종 공주 의상까지 준비했던 장작 주인공 백설공주 역을 맡은 나경아가 웃입기를 거부하면서 동화책 만들기는 난관에 봉착했다. 이에 둘째 나은이가 백설공주 역을 맡게 됐고, 막내 희성은 난쟁이 역을, 메이비는 마녀 역, 윤상현은 마부 역을 맡았다.

마녀 역을 맡은 메이비는 윤상현이 생일 선물로 선물했던 옷을 입고 등장해 웃음을 자아냈다. 독특한 스타일의 이 옷은 이효리에 게 “생일 때 (웃이 아닌) 상품권으로 주면 어떨까?”는 말을 하게 했던 바 있다. 이를 지켜보던 스페셜 MC 강성연은 “이걸 위한 의상인 줄 알았다. 옷이 공주같다”고 해 웃음을 더했다. 이후 윤상현과 메이비는 직접 더빙 연기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삼 남매를 위한 특별한 동화책을 만들어냈다.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일 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 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 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